

# Dresdner Philharmonie

드레스덴 필하모니는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국립극장)와 더불어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로 1870년에 창단되었다.

처음에는 공연장의 이름을 따서 게베르베 오케스트라로 불리다가 1915년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니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문 오케스트라답게 수많은 거장들이 이 악단과 함께 했다.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자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자작 자연했고 1934년부터 파울 반 캠펜, 칼 슈리히트가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1945년 이후 쿠르트 마주어, 귄터 헤르비히, 헤르베르트 케겔, 미셸 플라송 같은 정통 실력파 거장들이 음악감독으로 명멸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현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마렉 야노프스키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스페인의 명장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가 2004-5 시즌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장 쿠르트 마주어 역시 드레스덴 필하모니에 대한 애착이 각별하여 현재 계관지휘자(Laureate Conductor)로 재임하고 있다.

음반은 주로 베를린 클래식(Berlin Classics)에 많은데, 특히 헤르베르트 케겔이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 전집, 파울 반 캠펜 지휘, 빌헬름 켐프 피아노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 23(DG), 루돌프 마우어스베르거가 지휘하고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과 함께한 바흐 칸타타 등은 불후의 명반으로 꼽힌다. 드레스덴 필하모니는 공연장으로 유명한 쿨투어팔라스트(문화회관)에서 연 80회 이상의 연주를 하고 있으며, 드레스덴 시민의 자랑거리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

화려함을 가린 깊은 색조,  
서유럽이 모방할 수 없는  
육중한 동독 관현악의 품격



Mischa Maisky & Dresdner Philharmonie 09